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최선을



윤 수 철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29 소양목장

한해를 다시 맞으면서 새로운 설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거를 되짚어 보고 올해는 다시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과거 88년은 우리 축산업중에서 낙농육우분야에 종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우유를 짜고, 소를 기르는 낙농육우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참으로 혹독하고 두번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해였다.

더군다나 우리의 대변기관이요 모임체인 협회가 표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혹평일까.

회장의 교체, 2회의 총회 또한 회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업무집행이 늦어진다는 말은 제3자로부터 들었을때 참으로 낙농인의 한사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수모를 감당해 내야했다.

지나간 한해는 모두가 실망을 한 해였다.

쇠고기 수입과, 유제품수입, 그리고 원유가동결, 소의 유행열 등등.....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는 말과 같이 지나간 일들을 이해하자.

금년은 우리 모두가 목소리가 일치되어 “우리”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의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어 한 마음이 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목적하는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상대를 이해하며 내 목소리를 낮추고 화해와 타협으로 모든일을 한다면 어려운일이 없으리라 본다.

협회라는것은 모여서 의논하고, 그 모아진 의견을 전체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관철시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여질 수 있다는것도 협회라는 구심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동기가 되고 그 모여진 한목소리가 전달되는 사실도 보아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중 가장 큰몫은 원유가 현실화다.

당국에서 물가억제정책으로 원유가를 묶어놓았지만 왜 다른품목을 올려주며 원유가 만큼은 5년전의 가격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살아가야하는 절대성에 생명의 유지보다, 그 업에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협회는 아무쪼록 먼저 전체회원의 요구사항인 원유가 현실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